

# 여소야대 정기국회... 현안마다 '지뢰밭'

### 내달 1일부터 새정부 첫 예산안 심사·개혁입법 등 산적

### 사상 첫 4개 교섭단체... 지방선거 앞 정국 주도권 잡기 치열

이번 주중인 9월1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심사대에 오를 뿐 아니라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시도될 예정이어서 여야가 본격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국면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전초전 성격의 크고 작은 전투가 이미 치열하게 펼쳐졌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여야가 제대로 된 전면전일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사상 최초의 4개 교섭단체 제제로 치러지는 첫 정기국회인 데다 여야 어느 한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어서 정당 간의 사안별 전략적 공조 등 복잡한 대결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운영위·정보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 교체를 둘러싼 원구성 협상부터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 본격적인 예산, 법안 심사를 놓고는 공수가 바뀐 여당과 제1야당이 정면 충돌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을 내걸고 자유한국당 등 구체제를 압박할 것이고 한국당 역시 '신(新) 적폐'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버리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협조할 것에는 협조하고 야당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때에는 확실한 반대를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예산과 관련하여 여권은 지난 보수정권 내내 큰 폭으로 증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비롯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전 정권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는 방

침이다. 반면 야권은 증세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며 예산 심사에서는 일종의 느슨한 연대를 형성, 문재인 정부의 민생·복지 정책을 '피주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맞설 태세다.

입법 전선은 더욱 복잡하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12월2일 법정 시한에 맞춰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은 어느 정도 정착했지만, 이 법의 또 다른 양면인 철저한 합의 처리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권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 초고속도로에 한정한 이른바 '핀셋 증세'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전방위에 걸쳐 전선이 형성돼 사실상 정기국회 무대는 지뢰밭에 가까운 형국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여야가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개헌 역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를 하기 위해선 연내 큰 가닥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 국면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모두 기선 제압을 위해 정기국회 내내 기세를 높일 것이라 분석을 내놓는다.

국회 한 관계자는 27일 "이번 정기국회가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여당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비적이기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 역시 더 이상 여당에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큰 만큼 여권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세법·방송법 개정·복지예산 '뇌관'

### 與 TF 구성해 대응...野 '포퓰리즘' 공세 대격돌 예고

여야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열고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정기국회로,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안과 예산 등 이슈 하나하나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새 정부 첫 살림살이 예산 두고 불꽃공방 예상** =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심사 대응 TF는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전략을 짤 예정이다. 오는 11월 초에는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예결위 조정소위원회 집중 점검회의도 연다.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까지 마련한 것은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기조를 수차례 나타낸 게 예산"이라며 "예산을 통해 투쟁해야 하며,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11월은 예산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무분별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바른정당 역시 SOC 예산

삭감에 부정적이다.

◇**세법·방송관계법 등 여야 갈등 법안도 수도룩** = 9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전쟁'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부자(초고속소득자) 증세'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불을 냈다.

한국당은 우선 박근혜 정부 당시 인상했던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00cc 미만 승차에 대한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방송관계법 개정도 뇌관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대안을 생각하기 위해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며 관련법 개정 의사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결사 저지하겠다는 경경한 태세다.

한편 여당은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당·정·청 "소통·협력" ...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정비

### 문대통령, 민주 의원들과 회동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잇따라 회동하며 본격적인 전열정비에 나섰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고 다음달부터 열릴 '예산과 입법 전쟁'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야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으면서 확고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기국회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당정청은 특히 지난번 참여정부 때의 당·정 갈등이 되풀이될 경우 자칫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자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오찬 회동을 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며, 당과 공동운영체가 돼 운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입법 과제가 많아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야 정부도 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리는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의원직임제를 해서 입법 과제를 받기부터 통과까지, (그리고)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까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 및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번 정기국회 기간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국회에서 추동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실제로 오찬에 참석한 문희상 상임고문은 "이제는 청와대의 계절이 끝나고 국회의 계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국민의 삶 바꾸는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박종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김태연 정책위의장이 국정과제 달성 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수석부대표는 '민생·적폐청산·평화·민주상생'의 4대 기조를 재천명하면서 관련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청은 전날에도 세종시 흥덕대 국제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상임위별로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우선 추진 과제를 정하는 등 정책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당정청은 여권 내부의 단합 및 공조와는 별개로 지금의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인 만큼 예산안 통과와 개혁과제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형호기자khk@

# 민주 "100대 국정과제 입법 실현"

### 의원 워크숍...적폐 청산 등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위대한 국민의 부름을 받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국민의 선택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세종시 흥덕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정농단과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은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을 당당히 선언했다"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평등한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대한민국, 누구나

활린 땀만큼 보상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100대 국정과제' 입법실현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적폐청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평화수호', 여야 협치와 소통 강화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민주상생'의 정기국회를 실현하기로 결의했다. /김형호기자khk@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함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